

특별메세지 - 돌봄 1. 사역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시대

1.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해결이 없다. 한 고비 넘어가면 그 다음 고비가 나타난다. 끝없이 고민하게 한다. 걱정과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마태복음 6:25-31]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ㄱ) “먹이신다. 공급하신다. 들에 핀 꽃, 공중의 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칙은 공급하고, 먹여주고, 돌보는 시스템이다. 자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리신다.

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이방인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근심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다. 사고의 메카니즘, 삶의 메카니즘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 허무함

이방인의 근심을 깨달은 솔로몬의 고백은 허무함이다.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허무함, 즉 이 땅의 근심의 원인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다.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축복된 원리를 풀어낸 말씀이 잠언, 전도서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 수 있었다.

‘허무함’은 우울증 환자가 고백하는 말이 아니다. 보다 깊어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이제야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이제 더 기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된 사람의 고백이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시는 상대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 있어도 덜 영향을 받게된 상태를 말한다. 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다. 힘, 명예, 재정, 능력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일어난다. 정의가 실현되고, 가난과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돌봄의 시대

(1)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육과 땅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분 이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내가 사는 땅의 온전함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 (어루만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자.

[열왕기상 19:5-7]

5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자.

그 영광으로 내 마음이 압도당해야 한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안에 계속 경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사야 6:3-5]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나보다 더 강하시고, 능력있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에 대한 절대믿음이 생겨나는 경험을 하게된다. '하나'만 남게하라. 시편 27:4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하나만 남게하라. 그리고 그것만 점검하라.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의 임재로 가득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기경하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다. 아멘!